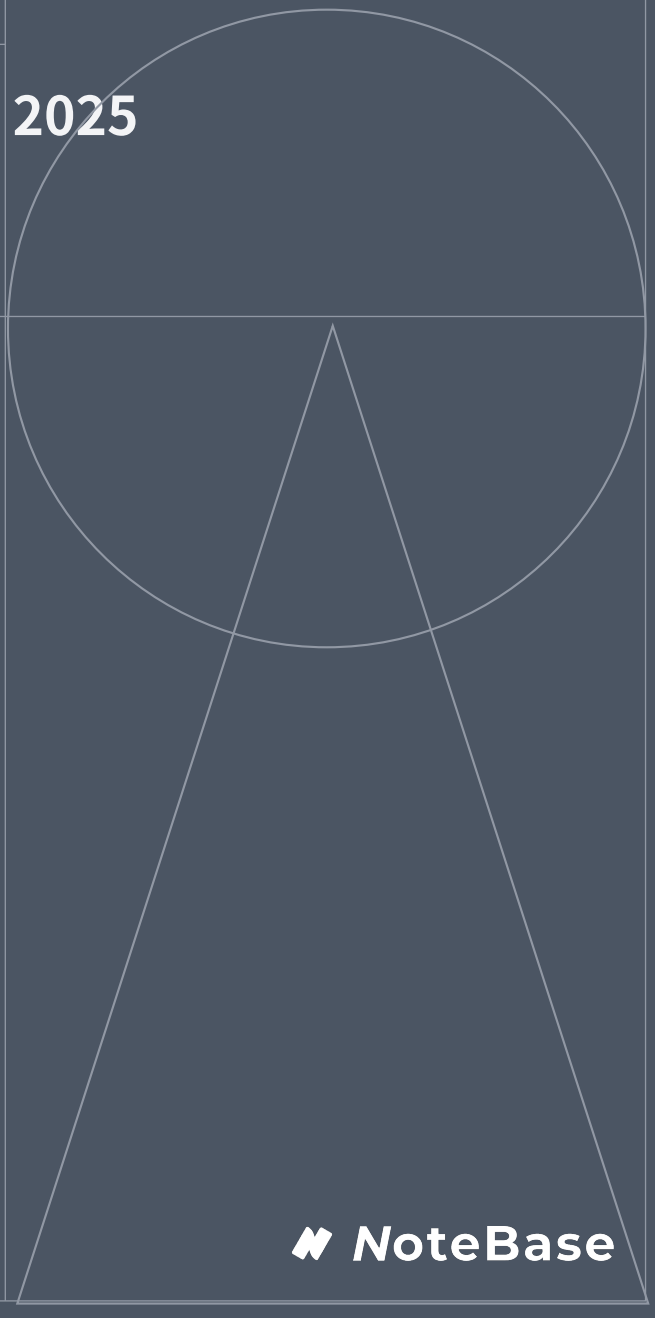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5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5

문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생소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우리말로 다듬을 것.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 지나친 명사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것.

<공문서>
□□개발연구원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종합 성과 조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디지털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종합 성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의 대상은 지난 3년간 □□개발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별도의 전문 평가 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 디지털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① ㉠: 기본 계획
② ㉡: 기업입니다
③ ㉢: 수주하며
④ ㉣: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주하다'는 **주문을 받다**라는 뜻이다. 이 공문서는 연구원이 전문 평가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상황이므로 **'위탁하며'를 그대로 써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스터플랜'은 전체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뜻한다. 이를 '기본 계획'으로 바꾸면 뜻을 살리면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므로, 생소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으라는 원칙에 부합한다.

② O: 원문의 '본 조사의 대상은 …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는 '대상은'이라는 주어에 '대상으로 합니다'라는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기업입니다'로 고치면 **'본 조사의 대상은 … 기업입니다'**가 되어, 조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③ X: '수주하다'는 공사나 물품 제작 등의 주문을 받는다는 뜻이고, '위탁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일을 맡긴다는 뜻이다. 이 문장의 주체인 연구원은 전문 평가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쪽이므로 **'위탁하며'를 유지해야 한다**. '수주하며'로 바꾸면 일을 맡기는 상황을 주문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어 문맥에 맞지 않게 된다.

④ O: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정책 개발 및'은 명사가 지나치게 이어져 단어 사이의 관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로 바꾸면 **조사와 어미로 단어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학교 현장의'는 환경이 속한 곳을, '환경을 개선하는'은 정책의 내용을 드러내며, '개발하고'는 뒤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 준다.

NoteBase

문 2.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 제목: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노동 문제 개선 방안

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
1. 열악한 노동 환경 및 복지 혜택 부족
2. 임금 체불 및 최저 임금제 위반
3. 사업장 내의 빈번한 폭언 및 폭행 발생

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문제 발생 원인
1. 청소년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부족
2. 노동 관계법에 관한 청소년 고용 업주의 인식 부족
3.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통념

Ⅲ.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문제 개선 방안

———

①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②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
③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
④ 청소년 고용 업체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개선 방안은 제도 부족, 업주의 인식 부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통념을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청소년 고용 업체의 규모 축소**는 이러한 원인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개요는 '노동 문제의 실태 → 발생 원인 → 개선 방안'으로 전개된다. 빈칸에는 Ⅱ의 원인을 해소하여 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① O: '제도 정비'는 Ⅱ-1의 **실효성 있는 제도 부족**에 대응한다.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개요의 흐름에 맞는다.

② O: '노동 관계법 교육과 지도 확대'는 Ⅱ-2의 **고용 업주의 노동 관계법 인식 부족**에 대응한다. 업주가 노동 관계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③ O: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교육 기관 설립'은 Ⅱ-3의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통념**에 대응한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방안으로 연결된다.

④ X: 개요에는 고용 업체의 규모가 노동 문제의 원인이라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업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제시된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감독과 단속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려면, 그 목적이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제 위반 등 노동 문제의 시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 한다.
복합어를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의 구성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고 한다. 이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둘 중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이고, 둘 다 어근이면 합성어이다. 즉 합성어는 '어근+어근'의 구성인데, 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접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쓴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 '-음'이 있으니까 (가)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복합어 구분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두 구성 요소의 성격이며, 2차, 3차로 쪼갠 결과는 복합어 구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즉 '쓴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나)(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① (가): 합성어, (나): 접사
② (가): 합성어, (나): 어근
③ (가): 파생어, (나): 접사
④ (가): 파생어, (나): 어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는 접사 '-음'이 있다는 이유로 '쓴웃음'을 **파생어로 오해한 반문**에 해당한다. '웃음' 자체는 파생어이지만, '쓴웃음'을 형성할 때에는 **어근**으로 참여한다.

빈칸별 해설

(가) 파생어: 앞에서 직접구성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라고 설명했으므로, 접사 '-음'의 존재만 보고 제기한 반문에는 '파생어'가 들어간다. 다만 이는 글쓴이가 바로잡으려는 오해이다. '쓴웃음'을 처음 나누면 '쓴'과 '웃음'이 되고, '-음'은 '웃음'을 다시 나누어야 드러난다. 복합어의 종류는 **처음 나눈 두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내부에 접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파생어라고 할 수 없다. '쓴웃음'은 두 직접구성요소가 모두 어근인 합성어이다.

(나) 어근: '웃음'은 '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그러나 '쓴웃음'의 형성에서는 '웃음' 전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어근으로 참여한다. 즉 **그 자체가 파생어인지**와 **다른 단어를 형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웃음'을 파생어라고 한 설명은 '쓴웃음'에서 어근으로 쓰인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에는 '파생어', (나)에는 '어근'이 들어가며, 이는 ④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과 성격의 문학작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문학 독자층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일부 신소설의 독자인 '전통적 독자층'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 연재 통속소설을 즐겨 봤던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다.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와 농민, 양반, 부녀자 등이 속하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는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 등이 속했다.
그런데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독자층도 존재했다.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문학 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문자를 익숙하게 다루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지식인층은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는 다른 문학적 향유 양상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②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③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

④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엘리트 독자층은 우리나라 신문학의 순수문학 작품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도 향유했다. 이는 두 번째 문단에 직접 제시되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번째 문단은 엘리트 독자층을 전통적 독자층과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라는 두 범주에 넣기 어려운 독자층으로 설명한다.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분화되었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엘리트 독자층은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 다른 문학적 향유 양상을 보인 독자층으로 이해해야 한다.

② X: 첫 번째 문단은 전통적 독자층이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일부 신소설을, 근대적 대중 독자층이 대중소설·번안소설·신문 연재 통속소설을 즐겨 봤다고 설명한다. 독자층을 나눈 기준은 **즐겨 읽는 문학작품의 유형과 향유 양상**이다. 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을 뿐, 신분과 학력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O: 두 번째 문단에서 엘리트 독자층은 신문학의 순수문학 작품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을 향유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 작품과 외국 소설을 모두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X: 첫 번째 문단에는 전통적 독자층의 예로 노동자·농민·양반·부녀자를, 근대적 대중 독자층의 예로 도시 노동자·학생·신여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재산이나 소득을 비교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어느 독자층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는지는 알 수 없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소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앰프에서 강력한 저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인 20 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우리는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을 '초저주파음'이라고 부른다. ㉡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 사람은 보통 20,000 Hz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다.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겨서 더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때의 음파를 '초음파'라고 부른다.

사람과 동물은 가청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개의 경우,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50,000 Hz의 진동까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기척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이는 개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넓기 때문이다.

① ㉠: 우리의 몸이 흔들리지 않을 뿐 귀로는 저음을 들을 수 있다

② ㉡: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은 소리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③ ㉢: 사람은 보통 20,000 Hz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④ ㉣: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좁기 때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 바로 뒤에서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는 진동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의 '소리로 인식한다'를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로 고쳐야 앞뒤 내용이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는 20 Hz보다 낮은 진동을 귀로 듣지 못하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몸이 흔들리지 않을 뿐 귀로는 저음을 들을 수 있다'로 바꾸면 글의 설명과 반대가 된다. ㉠은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로 두어야 한다.

② X: 글은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에도 '초저주파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는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본다는 뜻이므로, '소리로 간주할 수 없다'로 바꾸면 그 명칭을 사용한 이유와 어긋난다. ㉡은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O: ㉢ 앞에서는 높은 주파수 영역에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는 진동이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람은 보통 20,000 Hz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다'의 서술어를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로 고치면 앞뒤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글에 따르면 개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이 사람과 비슷하지만, 상한은 사람의 20,000 Hz보다 높은 50,000 Hz까지 이른다. 따라서 개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사람보다 넓다. ㉣을 '좁기 때문이다'로 바꾸면 이 비교와 모순되므로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넓기 때문이다'**로 두어야 한다.

NoteBase

문 6.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그 원리를 알려면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LCD는 다른 조명 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 효과를 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LCD는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나)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개발되었다. 평소에는 말거나 작게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펴서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상용화될 날도 머지않았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평평하고 딱딱한 것인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을까?
(다)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딱딱한 유리 대신에 쉽게 휘어지는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 반면 OLED는 화소 단위로 빛의 삼원색을 내는 유기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OLED 제품은 화면 뒤에 백라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도 있고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① (나)－(가)－(다)－(라)
② (나)－(가)－(라)－(다)
③ (다)－(가)－(라)－(나)
④ (다)－(나)－(라)－(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의 '그 원리'는 (나)에서 제기한 **화면을 접거나 말 수 있는 원리**를 가리킨다. LCD의 특성을 설명한 뒤 '반면'으로 OLED를 대조하고, **OLED의 특성에서 화면 변형의 실현으로** 설명을 이어 가야 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가) → (라) → (다)

(나): 롤러블 TV와 접을 수 있는 기기를 소개한 뒤, 화면을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는지 질문하며 글의 화제를 제시한다. 다른 문단을 전제로 하는 지시어나 접속 표현 없이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므로 첫머리에 놓인다.

(가): '그 원리'는 (나)의 마지막 질문인 **화면을 접거나 말 수 있는 원리**를 가리킨다.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LCD와 OLED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먼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의 특성을 설명한다.

(라): '반면'은 (가)의 LCD와 OLED를 대조한다. LCD와 달리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므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얇게 만들거나 특수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밝힌다. LCD의 특성을 설명한 직후에 와야 대조 관계가 분명해진다.

(다): (라)에서 설명한 OLED의 특성이 실제로 어떤 화면을 가능하게 했는지 보여 준다.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아, **쉽게 휘어지는 재료를 이용하여 말았다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결과로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7.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이 신체의 내부 온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과정을 '체온조절'이라고 한다. 체온조절을 위하여 동물은 신체 내부의 물질대사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 획득한다. 조류나 포유류는 체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생성된 열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온동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내온동물은 외부 온도가 변화해도 안정적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도 내온동물은 충분한 열을 생성해서 주변보다 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양서류나 많은 종류의 파충류와 어류는 열을 외부에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외온동물'이라고 부른다. 외온동물은 체온조절을 위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체온을 ㉡ 조절한다. 외온동물은 열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체내의 물질대사를 통해 큰 에너지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서 동일한 크기의 내온동물보다 먹이를 적게 섭취한다.

한편 체온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동물을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 구분하기도 한다.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항온동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부른다. 한때는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각각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체온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온동물에 속하는 많은 종류의 해양 어류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물에서 ㉣ 서식하기 때문에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내온동물은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박쥐 중에는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40 °C나 떨어뜨리는 종류도 있다.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①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②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③ 동물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④ 체온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 더 적합한 기준이 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내온·외온은 열을 어디서 얻는지, 항온·변온은 체온이 얼마나 일정한지에 따른 구분이다. 글은 해양 어류와 겨울잠을 자는 박쥐를 예로 들어 **두 분류 기준이 서로 다름**을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열을 얻는 방식만으로 체온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글에 따르면 외온동물인 해양 어류도 일정한 수온에서는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고, 내온동물인 박쥐 중에는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40 °C나 떨어뜨리는 종류도 있다. 따라서 내온·외온의 특징으로 항온·변온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는 설명은 글의 취지와 어긋난다.

② O: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은 열을 체내 물질대사로 얻는지 외부 환경에서 얻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은 체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환경에 따라 변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글은 두 구분을 소개한 뒤, 마지막 문단에서 사례를 통해 **열의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두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포괄한다.

③ X: 글은 내온·외온의 분류 기준이 항온·변온의 분류 기준보다 모호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두 기준은 각각 열의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심 내용은 **기준의 명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④ X: 글은 체온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열의 획득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두 분류는 동물의 서로 다른 특성을 설명하므로, **어느 기준이 더 적합한지를 가리는 관계가 아니다.** 글이 강조하는 것은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8. 윗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물이 신체의 내부 온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과정을 '체온조절'이라고 한다. 체온조절을 위하여 동물은 신체 내부의 물질대사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획득한다. 조류나 포유류는 체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생성된 열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온동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내온동물은 외부 온도가 변화해도 안정적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도 내온동물은 충분한 열을 생성해서 주변보다 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양서류나 많은 종류의 파충류와 어류는 열을 외부에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외온동물'이라고 부른다. 외온동물은 체온조절을 위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외온동물은 열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체내의 물질대사를 통해 큰 에너지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서 동일한 크기의 내온동물보다 먹이를 적게 섭취한다.

한편 체온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동물을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을 항온동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부른다. 한때는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각각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체온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온동물에 속하는 많은 종류의 해양 어류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내온동물은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박쥐 중에는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40℃나 떨어뜨리는 종류도 있다.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① ㉠: 얻는다
② ㉡: 올린다
③ ㉢: 나누기도
④ ㉣: 살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조절한다'는 체온을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춘다**는 뜻이다. '올린다'는 높이는 뜻만 나타내므로,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는 행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획득한다'는 열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얻는다는 뜻이다. '외부 환경에서부터 열을 얻는다'로 바꾸어도 **외부에서 열을 받아들인다**는 문맥의 의미가 유지된다.

② X: ㉡의 '조절한다'는 체온을 알맞은 상태로 맞춘다는 뜻이다. 그늘을 찾는 것은 체온을 낮추는 방향의 행동이고, 햇볕을 쬐는 것은 높이는 방향의 행동이다. '올린다'는 **온도를 높이는 뜻만** 나타내므로 두 행동을 함께 설명할 수 없다. '올린다' 대신 '알맞게 맞춘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O: ㉢의 '구분하기도'는 체온의 안정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동물을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갈라 분류한다는 뜻이다. '나누기도' 역시 **기준에 따라 종류를 가른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문맥의 의미가 유지된다.

④ O: ㉣의 '서식하기'는 생물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뜻한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로 바꾸어도 **어류가 그 물을 생활 장소로 삼는다**는 의미가 유지된다.

NoteBase

문 9.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집트 벽화에서 신, 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을 향하게 조합하여 그린 것이다. 이는 단일한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형상에 집약한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 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이다.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상들 중 신, 파라오, 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는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이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반면 고귀한 존재는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이집트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은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의 벽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이집트의 벽화에서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③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지 않고 고귀한 존재들만 표현하였다.

④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집트 종교의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 때문에 인물의 위계에 따라 벽화의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 고귀한 존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종교가 미술 양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는 신·파라오·귀족을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존재하는 자'로, 평범한 사람들을 찰나의 인생을 사는 '행위하는 자'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 전자는 이상적 규범에 맞게, 후자는 실제 행위하는 모습대로 그렸다. 따라서 존재와 행위를 동등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여** 표현한 것이다.

② O: 마지막 문단에서 같은 인간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종교의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이 고귀한 존재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바탕이 되고, 이러한 구분이 인물의 표현 방식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종교의 정신성이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X: 첫 문단에서 평범한 일반인도 벽화에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고 했고, 둘째 문단에서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린다고 설명한다. 고귀한 존재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되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이다. 고귀한 존재는 여러 시점에서 본 이상적인 부분들을 조합하고, 일반인은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인 실제 모습으로 표현했다.

④ X: 이집트인들이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 글에서는 종교의 정신성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가 고귀한 존재와 일반인의 표현 방식을 달리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즉 **이데올로기가 표현 방식을 결정한 것**이며, 고귀한 존재를 여러 시점의 조합으로 그린 것도 완전하고 장중한 형상을 보여 주려는 의도에 따른 결과이다. 선지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뒤바꾸었다.

NoteBase

문 10. 윗글의 ㉠~㉣ 중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이집트 벽화에서 신, 파라오, 귀족은 특이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가슴은 정면, 발은 측면을 향하게 조합하여 그린 것이다. 이는 단일한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형상에 집약한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 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이다. 그런데 벽화에 표현된 대상들 중 신, 파라오, 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는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그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집트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식화되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이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반면 고귀한 존재는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이집트 종교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정신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정신성은 양식화된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의 벽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상적인 신체 부위를 조합해 그리거나 불변의 양식으로 그리는 대상은 모두 **신·파라오·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이다. 이들은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여겨져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그들의': **신·파라오·귀족**을 가리킨다. 앞에서 이들의 눈과 가슴은 정면으로, 얼굴과 발은 측면으로 조합하여 그린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그려진'은 바로 이 표현 방식을 이어받으므로, 이상적인 부분들을 조합해 표현한 고귀한 존재들이 지시 대상이다.

㉡ '그들을': **고귀한 존재와 평범한 일반인 모두**를 가리킨다. 바로 앞에서 고귀한 존재는 이상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그리고, 일반인은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대조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 두 집단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다.

㉢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앞 문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까닭을 그들이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기에'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이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고 설명한다.

㉣ '그들은': **신·파라오·귀족과 같은 고귀한 존재**를 가리킨다. 앞 문장의 '반면 고귀한 존재는'에서 화제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고귀한 존재로 바뀐다. 이들은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과 ㉣은 고귀한 존재를, ㉡은 고귀한 존재와 일반인 모두를, ㉢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 묶으면 ㉠과 ㉣이며, 이는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 소설은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로 ㉠표기한 한문소설과 한글로 표기한 한글소설, 두 가지로 나뉜다. 한문소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 조선의 한글소설을 ㉡번역한 한문소설로 나뉜다. 그리고 한글소설은 중국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글소설로 나뉜다. 조선 시대에 많은 한글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한글소설을 외면했으므로 그에 관해 ㉢기록한 문헌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은 한문소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을 즐겨 읽고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한글소설은 같은 제목의 소설이라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다양한 이본이 있었다. 이는 한문소설의 독자는 문자 그대로 독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글소설의 독자는 독자이면서 이야기를 개작하는 작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한글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옮겨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조선 시대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설을 표기한 문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기 문자는 소설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감상 및 유통, 이본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① 조선 시대의 소설은 한글소설보다 한문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②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③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④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글은 한자보다 익히고 쓰기 쉬워, 필사자가 내용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 쉽게 개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글소설에는 같은 제목이어도 내용이 다른 이본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째 문단은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을 각각 유입·창작·번역 경로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분류만으로 한문소설의 종류가 한글소설보다 훨씬 다양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각각의 분류 방식**이며, 두 소설 집단의 다양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X: 첫째 문단에서 지식인들이 저급한 오락물로 여겨 외면한 대상은 **한글소설**이다. 한문소설은 오히려 즐겨 읽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따라서 저급한 오락물로 여긴 대상을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로 바꿀 수 없다.

③ O: 둘째 문단에서 한문소설의 필사본은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한글소설은 같은 제목이어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이본이 있었다고 했다. 이본은 같은 작품이면서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판본을 뜻한다. 한글은 한자보다 익히고 쓰기 쉬워 필사자가 원하면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었고, 독자가 이야기를 개작하는 작자 역할도 했다. 따라서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내용에 반영되기 쉬웠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X: 둘째 문단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이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고, 한글소설도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체 필사본 소설에서 두 종류가 차지한 비중**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글소설이 인쇄본보다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한글소설 내부의 유통 방식에 관한 설명이므로, 이를 전체 필사본 중 한글소설이 대부분이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 없다.

NoteBase

문 12. 윗글의 ㉠~㉣ 중 문맥상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조선 시대 소설은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로 ㉠표기한 한문소설과 한글로 표기한 한글소설, 두 가지로 나뉜다. 한문소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 조선의 한글소설을 ㉡번역한 한문소설로 나뉜다. 그리고 한글소설은 중국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을 번역한 한글소설, 조선에서 창작한 한글소설로 나뉜다. 조선 시대에 많은 한글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한글소설을 외면했으므로 그에 관해 ㉢기록한 문헌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은 한문소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을 즐겨 읽고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한문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한글소설은 같은 제목의 소설이라도 내용이 상당히 다른 다양한 이본이 있었다. 이는 한문소설의 독자는 문자 그대로 독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글소설의 독자는 독자이면서 이야기를 개작하는 작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한글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옮겨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조선 시대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설을 표기한 문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기 문자는 소설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감상 및 유통, 이본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의 '옮겨 쓰는'은 이미 있는 소설을 **손으로 베껴 쓰는** 행위를 뜻하므로, ㉣의 '필사한'과 의미가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한글소설이 인쇄본보다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다는 설명에 이어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 '옮겨 쓰는'은 기존 소설을 손으로 베껴 쓰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의미를 기준으로 ㉠~㉤을 비교한다.

① ㉠ '표기한': 소설을 **한자라는 문자로 나타냈다**는 뜻이다. 소설을 어떤 문자로 썼는지에 초점이 있으며, 기존 글을 베껴 썼다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 '번역한': 한글소설을 한문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이는 **한 언어의 표현을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기존 글을 손으로 베껴 쓰는 (가)와 구별된다.

③ ㉢ '기록한': 한글소설에 관한 내용을 문헌에 적어 남겼다는 뜻이다. **소설에 관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지, 소설 자체를 베껴 쓰는 것은 아니다.

④ ㉣ '필사한': 기존 소설을 **손으로 베껴 썼다**는 뜻으로, (가)의 행위와 일치한다. 지문에서 한글소설의 다양한 이본이 생긴 것은 필사자가 베껴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바꾸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작 가능성은 '옮겨 쓰는'이 필사를 가리킨다는 해석과 모순되지 않는다.

기존 소설을 손으로 베껴 쓴다는 공통 의미를 지닌 표현은 ④의 ㉣ '필사한'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언어의 형식인 말소리와 언어의 내용인 의미 간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 한다. 즉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은 약속으로 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언어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한번 정해지면 개인이 쉽게 바꿀 수가 없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한다. 셋째,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넷째, 하나의 언어 형식은 수많은 구체적 대상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을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책상들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여 하나의 언어 형식인 '책상'으로 표현한다.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한다.

①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 가족과 대화할 때는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③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④ 새로운 줄임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추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같은 의미를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말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은 언어 공동체의 약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의성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성질이다. 특정 의미가 반드시 하나의 말소리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면 방언에 따라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달라질 수 없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방언별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의미에 서로 다른 형식이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X: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대화 상대와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이다. 글에서 말하는 사회성은 표현이 사회생활에 쓰인다는 뜻이 아니라,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례를 글에서 정의한 사회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역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화한다는 성질이다.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어가 변화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만든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공통된 언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사회적 약속을 중시하는 사회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④ X: 새로운 줄임말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지는 현상이므로 **역사성**과 연결된다. 추상성은 여러 구체적 대상의 공통 속성을 추출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성질이다. 글에서 서로 다른 책상들의 공통 속성을 '책상'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그 사례이며, 말을 짧게 줄이는 것과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는 이중모음의 발음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찾을 수 있다.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발음해야 하지만, 글자와 다르게 발음하는 원칙이 덧붙은 경우도 있다. 이중모음 '–ㅢ'의 발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초성이 자음인 음절의 '–ㅢ'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야 한다. 둘째, 첫음절 이외의 음절에서 '–ㅢ'는 이중모음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셋째, 조사 '의'는 이중모음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ㅔ]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발음하려 할 때 원칙 간에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다. '무늬'의 경우, 첫째 원칙에 따르면 [무니]로 발음해야 하는데 둘째 원칙에 따르면 [무늬]도 가능하고 [무니]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충돌할 때에는 첫째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물어본다는 뜻의 명사 '문의(問議)'처럼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첫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둘째 원칙이 적용된다. '문의 손잡이'에서의 '문의' 역시 받침이 이동하여 발음되기는 하지만 조사 '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둘째와 셋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셋째 원칙을 따른다.

① '꽃의 향기'에서 '꽃의'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② '거의 끝났다'에서 '거의'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③ '편의점에 간다'에서 '편의점'은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④ '한 칸을 띄고 쓴다'에서 '띄고'는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거의'의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음절이므로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가 아니라 **[거의]와 [거이]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꽃의'는 명사 '꽃'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이다. 받침 'ㅊ'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되지만, 표기상 '의'에 자음 초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첫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와 셋째 원칙이 겹칠 때에는 **조사 '의'에 관한 셋째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꼬츼]가 원칙이고 [꼬체]도 가능하다.

② X: '거의'의 '의'는 둘째 음절에 있고, 조사도 아니며 표기상 자음 초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둘째 원칙에 따라 [ㅡㅣ]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문 후반에서 둘째 원칙을 적용하면 두 발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과 같다.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로 고쳐야 하며, 가능한 발음은 [거의]와 [거이]이다.

③ O: '편의점'의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음절에 있고 조사가 아니므로 둘째 원칙을 적용한다. '편'의 받침 'ㄴ'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되더라도, **표기상 '의'의 초성이 자음인 것은 아니므로** 첫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의 명사 '문의'와 같은 경우로, [펴늬점]이 원칙이고 [펴니점]도 가능하다.

④ O: '띄고'의 '띄'는 표기상 초성이 자음 'ㄸ'인 음절이다. 따라서 첫째 원칙에 따라 'ㅡㅣ'를 **[ㅣ]로 발음해야 하므로** [띠고]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 '띄'는 첫음절이고 조사도 아니므로 둘째·셋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설명회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을: 설명회를 _____.
병: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자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 하겠군요.

①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②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갑이 제시한 두 날짜 중 **넷째 주 목요일을 제외하면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 병의 조건을 적용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의 결론이 나온다.

빈칸별 해설

갑은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병은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경우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의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면, 을의 말로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함**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을의 빈칸: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가 들어가면 갑이 제시한 두 날짜 중 넷째 주 목요일이 제외된다. 그러면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하고, 병의 말에 따라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두 가능성 중 하나를 배제하여 나머지를 확정**하는 말이 ③의 내용이다.

다른 후보와의 구별: ①은 넷째 주 목요일 개최를 요구하고, ②는 셋째 주 목요일 개최를 배제하므로 갑의 말과 합치면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병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때 포스터 제작을 언제 완료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두 후보로는 정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④도 넷째 주 목요일 개최를 배제하지 않으며, 그날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제작을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결론이 보장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가) ~ (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한다.
(나)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면,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다)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하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따라서 _____.

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②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③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④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는 경우와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하는 경우 모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에 따라 두 경우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하므로, 이 공통 결과는 반드시 성립한다.

공통 해설

전제로부터 반드시 성립하는 결론을 찾으려면, 전제가 허용하는 **어느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를 찾아야 한다. (가)의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한다'는 두 상황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는 뜻이며, 둘 다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말은 아니다.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면 (나)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하면 (다)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어느 쪽이 성립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는 결과가 공통**으로 따라온다.

반면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결과는 (나)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는 결과는 (다)에서 각각 제시된다. (가)만으로는 두 상황이 모두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의 편리와 경제 침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성립하는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두 결과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결론 역시 도출할 수 없다.

NoteBase

문 17.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면,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
◯ 병이 휴가를 낸다.

①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②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③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낸다.
④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병이 휴가를 내므로 두 번째 진술의 대우에 따라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간다. 그러면 첫 번째 진술의 대우에 따라 **갑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조건문은 앞의 조건이 성립하면 뒤의 결과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결과를 부정하면 조건도 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든 진술을 '대우'라고 한다.

① O: 두 번째 진술의 대우는 '병이 휴가를 내면,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간다'이다. 병이 휴가를 내므로 을은 출장을 간다. 첫 번째 진술의 대우는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면, 갑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이므로 **갑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② X: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진술에 따라 병은 휴가를 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병이 휴가를 낸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따라서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간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병은 휴가를 낸다'는 주어진 사실이지만,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간다'는 앞에서 도출한 결론과 반대이다. 두 내용을 '그리고'로 연결한 진술은 **두 내용이 모두 참이어야** 참이다.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고 병은 휴가를 낸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간다는 내용은 참이지만,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는 주어진 사실과 반대이다. 따라서 두 내용을 함께 주장한 진술은 거짓이다.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낸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은 도시 이외 지역의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A국 정부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연봉을 10% 인상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연봉을 인상하기보다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직 교사들뿐 아니라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 다수는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① A국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A국에서 도시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 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교통 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졌다.

③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B국에서는 교사 연봉을 5% 인상한 후, 도시 이외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④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C국에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도시뿐 아니라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교통 시설 부족 때문에 도시로 이직했다면, 근무 지역을 선택할 때 **소득보다 사회 기반 시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연봉 인상보다 근무 환경과 기반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글의 논지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연봉 인상과 교사 양성 확대보다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자료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지 비교한다.

①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약화한다. 도시와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면, 도시 이외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근무를 꺼린다**는 설명의 근거가 약해진다. 사회 기반 시설의 상태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 환경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는 아니다.

② 사회 기반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더 낮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도시로 옮긴 주된 이유가 교통 시설 부족이라면, **연봉을 높여도 해소하기 어려운 근무 지역의 불편**이 있다는 뜻이다. 교사에 한정된 사례는 아니지만, 같은 A국에서 기반 시설 부족이 근무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이므로 교사 충원에서도 기반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연봉 인상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A국과 유사한 B국에서 교사 연봉을 5% 인상한 뒤 도시 이외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연봉 인상으로 교사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이는 A국 정부가 제시한 10% 인상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게 하므로, 그 정책보다 환경과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라는 글의 논지를 강화하지 않는다.

④ 교사 양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A국과 유사한 C국에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뒤 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교사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교사 양성 확대가 해당 지역의 교사 공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의 자료이다.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①, 연봉 인상과 교사 양성 확대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③·④와 달리, ②는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이 인력 이탈을 유발한다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글의 논지를 가장 잘 강화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쿤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를 포함하는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전정상과학 시기,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정상과학 시기, 기존 패러다임이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과학혁명 시기가 그것이다. 패러다임은 모든 과학자에게 동일한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을 따르게 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성숙한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한 번도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해 전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는 과학 분야는 과학자 모두가 제각기 연구 활동을 한다. 과학의 발전 단계상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과학 분야라도 패러다임을 정립하면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뒤에 다시 전정상과학 시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정상과학 시기는 언제나 과학혁명 시기로 이어지고, 과학혁명 시기는 언제나 정상과학 시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상과학 시기의 과학자는 동일한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혁명 시기의 과학자는 기존 패러다임 혹은 새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 활동을 하기에 그 두 시기에 있는 과학 분야는 모두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를 때, (가)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쿤의 진단이다.

①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동일한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②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③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④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분야는 전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어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이다. 이런 사회과학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를 뒷받침한다.

NoteBase

공통 해설

이 글에서 성숙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패러다임을 한 번이라도 정립했는가**이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했다면 전정상과학 시기에 해당하여 미성숙한 상태이다. 반면 한 번 정립했다면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고, 이후에는 정상과학과 과학혁명 시기를 오갈 뿐 전정상과학 시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 방향이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거나 교체되는 중이라는 것은 기존 패러다임이 이미 정립되었음을 뜻한다. 교체 뒤 하나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한다면 정상과학 시기이고, 교체 중 기존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 방향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면 과학혁명 시기이다. 두 시기는 모두 성숙한 수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는 분야는 현재 연구 기준이 서로 다르더라도 미성숙한 분야의 사례가 될 수 없다.

(가)는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라 **일부 사회과학 분야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전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는 사회과학 분야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정립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과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존재는 바로 그 사례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은: 기차가 달리고 있는 선로에 다섯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 기차를 피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서 선로를 변경하면 다섯 명의 인부 대신 다른 선로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돼. 이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소현: 이런 경우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스위치를 눌러서 한 명이 죽더라도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거야.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조치 아니겠어?
은주: 글쎄, 행위에 따른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기준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니야?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따진다면, 스위치를 눌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중에 당연히 살인에 해당하는 전자가 더 나쁘지.
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위치를 누르면 살인이고, 누르지 않으면 방관일 텐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자는 후자보다 무겁게 처벌되잖아. 게다가 생명의 가치는 수량화할 수 없으니 한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가지는 생명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어.
영민: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 데 원론적으로는 나도 동의해. 하지만 지금처럼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① 스위치를 누르는 일을 살인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은주는 보은과 견해를 같이한다.

②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영민은 원론적으로는 보은과 견해를 같이한다.

③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소현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소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소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가 대화와 다르다. 소현도 한 명이 죽더라도 다섯 명을 살리겠다고 했으므로, 영민과 마찬가지로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주는 스위치를 눌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다. 보은도 스위치를 누르면 살인이고 누르지 않으면 방관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를 살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견해가 같다.

② O: 보은은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으므로 다섯 사람의 생명 가치가 한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민도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할 수 없다는 데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영민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서는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원론적인 동의와 실제 선택 기준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③ O: 소현은 한 명이 죽더라도 다섯 명을 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스위치를 누르겠다고 한다. 반면 은주는 스위치를 눌러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살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소현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X: 영민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소현도 스위치를 눌러 한 명이 죽더라도 다섯 명을 살리겠다고 한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다섯 명이 죽고 누르면 한 명이 죽으므로, 소현의 선택 역시 사망자 수를 줄이는 선택이다. 따라서 '소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소현도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